

Rule1 논증이란 무엇인가?

‘논증’이란 자신의 주장(결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증거(전제)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증의 첫 단계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가와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논증에서는 주장을 ‘결론’이라고 하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예시

나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웃을 것이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하나의 논증입니다. 왜냐하면 왜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웃어야하는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웃을 것이다.’ (결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제)

하지만 문제는 위 문장처럼 전제와 결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시

402호의 신문보관함을 살펴보았다. 그 보관함에는 신문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402호가 장기간 비워진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위 문장에서 결론은 ‘402호가 장기간 비워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문보관함에 신문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신문은 보통 매일 배달되기 때문에 현재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문보관함에 배달된 신문을 매일 가져갈 것’이라는 일반적 사실입니다. 위 문장은 이러한 일반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서 전제로 사용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Rule2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라.

전제와 결론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 이유는 논술에서는 항상 자신의 주장(결론)에 대한 근거(전제)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이다. 논증하지 않고 주장만 펼치면 낙제점수를 받게 된다. 이는 논리력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사실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완주하는 경기이다.’

이것은 사실이기에 논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둘 개념이 있는데, 바로 ‘공리’라는 것입니다. 공리란 논리학이나 수학에서 쓰이는 개념으로서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참이라고 인정되는 명제’를 뜻합니다.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도, 그 수의 다음 자연수(따름수)가 존재한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등이 공리의 예입니다. 논술문을 쓸 때에는 사실을 수학의 공리처럼 대하면 됩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취향과 주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향 또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취향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는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는 타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수지가 아이유보다 좋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입니다. 이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은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주장은 논쟁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이 다른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키기 쉬운 원칙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을 뿐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첨삭을 하다보면 많은 학생들이 종종 논증하지 않은,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나쁜 예시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새로움에 대한 다수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을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다)는 서로 구별된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바람직한 다수는 새로움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시키지 않는다. 제시문(가)에서 종교창시자의 능력을 가진 피타고라스, 플라톤이 수준 높은 그리스에서 종교창시에 실패한 점과 루터가 남유럽에 비해 뒤쳐진 북유럽에서 성공한 종교개혁을 보아, 다수가 새로움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파의 요구들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고, 다수가 새로움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이 새로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다수의 새로움에 대한 수용이 진보와 발전을

이론다는 점에서 새로움에 대한 수용을 긍정한다. 하지만 제시문(나)와 (다) 역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주체와 새로움을 전승하는 수단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나)에서 새로움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걸작은 독립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여 혼자서 완결되는 자기완결성을 띤다. 그리고 걸작은 그 걸작을 모독하는 아류를 통해 전승된다는 역설을 가진다. 걸작을 모방하고 모독하는 아류를 다수가 비판한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걸작에 대한 존경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문(다)에서 혁신(새로움)은 무수한 창조집단의 집단적인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혁신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두 잊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기반으로 다시 축적을 해 나간다. 이러한 대체와 축적의 과정을 통해 새로움은 발전하고 계승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진보를 가져온다.

위 글은 The논술 ‘연세대편’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서 연세대 논술에 대한 학생의 답안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제시한 글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제시문(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다수의 새로움에 대한 수용이 진보와 발전을 이론다는 점에서 새로움에 대한 수용을 긍정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논술 채점자들은 글에서 학생의 주장이 발견되면 그 주장의 근거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만약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이는 논리력에서 큰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Rule3 글의 주제에 집중하라.

전제와 결론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 이유는 논술에서는 항상 자신의 주장(결론)에 대한 근거(전제)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이다. 논증하지 않고 주장만 펼치면 낙제점수를 받게 된다. 이는 논리력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 설정한 방향과 다른 곳으로 글을 전개하지 말아야 하고 주제와 관련 없는 문제나 정보를 끌어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끝까지 잊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서 직선적으로 글을 써나가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선입견과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 선입견이나 감정에 빠지면 주제를 잊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이 본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와서 실패한 글이 만들어집니다. 아래는 존경하는 유시민님의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왜 글의 주제에 집중해야하는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기에 책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中)

감정에 휘둘려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지만 내가 겪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예전에 함께 정당 활동을 하던 분들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다. 끝내 갈등을 수습하지 못해 갈라서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하필이면 그때 중앙당의 고위 당직자가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 공동대표였던 나를 가까이에서 자주 보았던 사람이었다. 이 글의 핵심은 밑줄 그은 세 문장이다.

짧은 일화입니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권력에 가까이 있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 발언과 아메리카노 커피 관련 이야기입니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와 심상정 의원의 공통점중 하나는 대표단회의 전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비서실장이나 비서가 항상 회의 중 밖에 커피숍에 나가 종이 포장해 사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해가 안가고 민망해서 모 공동대표 비서실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공동대표단회의 앞두고 매일같이 밖에 나가 비서실장이 아메리카노를 사옵니까?”라고...

비서실장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어야 회의를 할 수 있는 이 분들을 보면서 노동자 민중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여기서 글쓴이는 어떤 주장을 했고 사실을 근거로 들어 그 주장을 논증했다. 논리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상당히 잘 쓴 글이다. 무엇보다 주장이 분명하다. 첫 번째 밑줄 그은 곳을 보자. '유시민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주관적 가치판단을 담은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비서실장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밑줄 그은 문장이다. 여기까지는 성공했다. 주장과 근거가 다 명확하고 논리적 연관이 뚜렷하다. 정의와 평등에 대한 사람의 직관을 건드린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쓰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똑같이 존엄하다고 믿는다. 20세기 지구행성에 존재한 대부분 문명국가에서 이것은 '공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 명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똑같이 존엄한 인간들이 활동하는 조직에 수직적 위계와 서열이 있다.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지휘 받는 사람이 있다. 평등한 인간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위계조직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존엄과 만인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버릴 수도 없다. 어떡하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조직의 위계를 인격의 위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조직의 위계와 서열은 인격의 높고 낮음과 관계가 없다. 신분 차이나 지배, 종속 관계도 아니다. 단지 인격적으로는 평등한 개개인이 조직전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합의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계 조직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협력한다. 조직에서 지위와 서열이 낮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곧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이라는 이상을 존중하는 행동이다. 이 관점은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육군대장과 이등병, 정당대표와 당직자, 국회의원과 비서관, 기업경영자와 영업사원, 항공회사 임원과 승무원을 가릴 필요가 없다. 위계와 서열은 조직의 목표 수행과 관련한 영역에만 적용해야하며 그 한계를 넘어 인격적 상하 관계나 지배, 종속 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 원칙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청소 노동자와 '주먹인사'를 하는 사진은 세계 시민의 호감을 얻었다.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좋아한 것은 세계 최강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에도 이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에서 누가 이 원칙을 무참하게 짓밟으면 사람들은 화를 낸다.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 소위 '땅콩회항' 사건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격렬한 분노를 일으킨 것은 이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회장의 딸이며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비행기를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쫓아냈다 부사장과 사무장은 조직에서는 상하관계 이지만 인격적으로는 평등하다. 이것이 문명사회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부사장은 사무장의 인격을 무시하고 노예 취급을 했다 조직의 위계가 마치 인격의 위계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모욕당한 것처럼 화를 냈다. 정부 당국은 평소대로라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겼겠지만, 너무 많은 시민이 자기 일처럼 화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벌가의 딸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상은 그저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말자. 이상은 종종 철옹성처럼 보이던 현실을 흔들고 무너뜨린다. 이제 정당의 대표가 비서실장이나 비서한테 커피심부름을 시킨 일로 돌아가 보자. 이것은 조직의 역할 분담을 넘어 인격의 평등과

존엄을 해치는 행위인가? 정당은 같은 정치적 이상을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만든 단체다. 직급이 아래라고 해서 당원 동지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인격적 존엄을 해치는 행동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대표가 비서실장한테, 국회의원이 수행비서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다. 문제의 글을 쓴 당직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다. 나는 당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렸다.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글쓴이가 커피 심부름과 관련한 사실을 과장했다는 점을 예둘러 지적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매번 커피 심부름을 시키지는 않았다. 커피를 밖에 나가서 사온 것도 아니었다. 회의실 출입문 맞은편 계단을 한 층 내려가면 국회의원 식당 테이크아웃 커피 코너가 있다. 회의실 가는 길에 직접 커피를 사서 들고 간 때가 더 많았다. 그런데 진보정당은 회의를 오래 하는 관습이 있다. 회의가 길어지면 카페인이 더 필요하다. 커피 때문에 정회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누구한테든 문지를 보내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매번 당대표 비서실장이 심부름을 하지는 않았다. 수행비서가 다른 일로 멀리 있을 때만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 부탁했을 뿐이다. 나는 수행비서한테 커피를 부탁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수행비서는 10여 년간 이웃에 살면서 함께 당구도 치고 낚시도 다니고 밥도 먹는 관계였다. 그는 내가 작가로 활동하는 지금도 함께 일하는 '로드매니저다.' 일정과 자료를 관리하고 운전을 해주며 적어도 하루 한번 반드시 밥을 같이 먹는다. 나는 작업실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 두 잔을 만든다.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몫이다. 예나 지금이나 역할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산다. 그렇지만 나는 그 당직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철저한 민주주의자라면 자기가 마실 커피를 손수 구하는게 옳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혹시 내가 다른 곳에서도 권위주의적으로 보이는 언행을 한 적은 없었는지 자성해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답변삼아 쓴 다음 아메리카노커피를 마시는 것은 정치적 신념과는 무관한 취향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마실 생각이라고 했다 그 당직자가 말미에 한 주장 때문에 덧붙인 말이었다. 세 번째 밑줄 그은 문장이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어야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 민중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의아하다.'는 주장은 거센 풍파를 일으켰다. 주제와는 관계없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없었다면 더 좋았을 이 문장 때문에 글쓴이는 심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지만 정리하면 대충 이런 것이었다. 노동자 민중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 믹스커피는 민중적이고, 아메리카노 커피는 반민중적이냐. 아메리카노 커피가 미국커피 맞냐. 시골 할아버지들도 모내기하다가 새참으로 커피 마시는데 무슨 헛소리냐. 비판의 초점은 '아메리카노 커피'와 '노동자 농민'을 연결한 것이었다. 그 당직자는 다시 글을 올려 아메리카노커피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를 이해하고 지지한 당원과 네티즌도 인터넷 언론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반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문제가 된 글의 결함은 특별하게 아니었다. 글쓴이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논점 이탈의 오류'를 저질렀다. 흔히 볼 수 있는 사소한 흠결 이었다.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주제는 '유시민 공동대표의 권위주의적 생활 태도'였다. 마지막 한 문장을 제외하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문장 하나로 인해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가 마치

막까지 철저하게 주제를 의식하고 논리적 긴장감을 유지했다면 이렇게 썼을 것이며, 그랬다면 '아메리카노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사먹거나 타먹지 않고 아랫사람한테 매번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권위주의적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사람에게 대한 예의가 없다'는 주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애초의 문제의식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유시민 공동대표를 싫어했다. 그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논리적 맥락에서 벗어난 취향 고백을 해버린 것이다. 글쓴이는 평소 아메리카노 커피가 '미제국주의가 퍼뜨린 양키문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그것대로 따져보면 된다. 그러나 '유시민 공동대표의 권위주의적 생활 태도를 비판하는 글에 '아메리카노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노동자 민중과 인연이 없다'는 주장을 덧붙인 것은 명백한 오류였다. 글 한 줄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비난과 조롱을 받은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런 불행을 피하려면 냉정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까지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논증의 미학을 실현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다. 말과 글로 논증하고 토론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그 규칙을 지키면서 글을 쓰는 것은 훨씬 어렵다. 이해는 생각만 해도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삶으로 몸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다. 글쓰기도 그런 것이다

Rule4 하나의 입장을 고수하라.

논증이란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 **여러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무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논증은 논점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고, 그 주장은 다른 주장들과 대립됩니다. 따라서 논증하는 글에는 자신의 주장이 맞고 다른 주장이 틀렸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예시

나는 정승제의 개념 때려잡기가 가장 좋은 수학 강의라고 생각한다.

위 주장은 논증의 형식을 띄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다른 입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포함하며 다른 입장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다면 ‘한석원의 알파테크닉이 가장 좋은 수학 강의다.’, ‘신승범의 수능적 해석이 가장 좋은 수학 강의다.’, ‘이창무의 개념의 정상이가 가장 좋은 수학 강의다.’ 등의 주장을 비판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면 도전적이고도 명쾌하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논증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나쁜 예시

나는 정승제의 개념 때려잡기가 가장 좋은 수학 강의라고 생각하지만, 한석원의 생각의 질서도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석원의 생각의 질서를 듣기를 추천한다.

위 주장은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좋은 논증이 아닙니다. 정승제의 개념 때려잡기가 가장 좋은 수학 강의라고 했다가 한석원의 생각의 질서도 좋으니 한석원의 생각의 질서를 듣기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 의견을 어설피게 취합한 것에 불과하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다른 의견은 버리고 하나의 입장을 취하십시오.

일단 처음 논증을 배울 때에는 교과서적 개념인 ‘중도적 입장’, ‘배려와 타협’, ‘균형 잡힌 시각’ 등은 있는 게 좋습니다. 논증이란 자신의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옳다고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논증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편협한 시각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협한 시각으로 일관된 글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편협한 시각으로 보이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써 정당화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100% 옳은 주장은 없기에 자신의 주장이 틀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다른 입장을 철저히 비판하십시오.

Rule5 단어는 일관되게 사용하라.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싶다면 **단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어를 혼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읽는 이로 하여금 주제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나쁜 예시

(다)의 제시문은 **‘새로움’**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움은 **‘혁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사람들을 계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선한 계몽’**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행동을 취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선함’**이야말로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논리적 일관성을 담보하고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읽는 이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고 싶다면 단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문장은 좋지 않은 논증의 예시입니다. 처음에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끝까지 일관된 용어로서 논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 예시에서는 ‘새로움’, ‘혁신’, ‘제도적 개혁’, ‘신선한 계몽’, ‘신선함’의 단어가 혼재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합니다. 이는 아주 좋지 못한 글쓰기 습관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논술 답안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개요를 작성하고 답안을 완성할 때 일관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논증의 기술 中 (앤서니웨스턴著)

좋은 예시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다 보면 인간의 **관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관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다보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나쁜 예시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다 보면 인간의 **관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관행**의 다양성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면 다른 삶의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인류학을 공부하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Rule6 최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라.

추상적 표현은 자신감의 결여를 나타낸다.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주제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과 관련된 논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는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읽는 이가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이며 그와 관련된 논점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증은 자신의 견해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표현으로 최대한 친절하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합니다. 일반적, 추상적 표현은 읽는 이의 이해를 쉽게 하며 흥미를 끌게 하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쁜 예시

저는 반장 선거에 나오게 된 김태수입니다. 저는 제가 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 학생들과 사이가 좋고 성적이 우수하며 청소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시

저는 반장 선거에 나오게 된 김태수입니다. 저는 제가 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교성이 좋아 새롭게 반이 배정되자마자 반의 모든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며 연락처를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전교 10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기에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반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이 끝난 후에 항상 칠판을 닦았으며, 쉬는 시간에도 교실 내의 더러운 곳을 쓸고 닦았기에 학급의 청결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쁜 예시처럼 논증을 한다면 ‘그래서 어찌라고? 나도 저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라는 반응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문장은 큰 공감은 불러일으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면 ‘맞아! 저 친구는 닳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과 얘기하며, 전교 10등 안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고, 항상 수업이 끝난 후에 칠판을 닦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 내의 청결에 힘썼어. 저 친구가 반장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라는 반응이 돌아올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써 상대방의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자신이 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훨씬 분명해졌습니다.

나쁜 예시

조나단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주장은 옳지 않다. 과도하게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현실감각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좋은 예시

조나단은 낙관적 신념을 가질수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기에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실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예를 들어 자신의 수학 성적이 80점인데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라고 평가하여 기존의 공부 방식을 유지한다면 다음 시험에서도 80점의 성적을 받아 결과적으로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자신의 실력이 80점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20점을 채우기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한다면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 행복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고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나쁜 예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 못 되었다. 첫째, 조나단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위 문장만 보고 읽는 이가 조나단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둘째, 조나단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추상적이다. 이러한 원론적 수준에서의 근거 제시는 읽는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 차라리 아래의 예시처럼 구체적 예로써 논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Rule7 중요한 것은 근거의 설득력이지 태도나 어조가 아니다.

추상적 표현은 자신감의 결여를 나타낸다.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주제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계속 하는 말이지만 논증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논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지 말의 어조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의 말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나쁜 예시

“만약 집정자로 하여금 허락하게 한다 하더라도 조선인의 집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오호라 동종동족끼리 원한을 맺어 서로 원수가 되어 망국의 지경이 되어도 후회하지 않으니 어찌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전 조선인의 습관이 되어 마침내 단체성이 없는 인종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개탄할 만한 일이 아니며,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라. 아아! 슬프도다!”

위는 1915.12.26.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실린 논설문의 일부입니다. 이 논설문을 쓴 사람은 장지연입니다. 그가 작성했던 ‘시일야 방성대곡’이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기에 우리는 흔히 그를 애국자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후에 철저한 친일파로 변모하여 일제의 폭압적 정치를 찬양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각설하고, 위 문장의 논증력만을 평가해보겠습니다. 위 문장의 주장은 ‘집정자가 허락한다고 해도 조선인들은 단체성이 없어 집회를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밝힌 이상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단어들만 곳곳에서 보일 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동종동족끼리 원한을 맺고 서로 원수가 되어 망국의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정말 원수가 되어 망국의 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선인의 습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단체성이 없는 인종은 집회를 열 수 없는가?’

집정자가 허락한다고 해도 조선인들은 단체성이 없어 집회를 열 수 없다.’라는 주장을 논증하려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위 논증은 감정과 어조, 태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논술이 원하는 것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이지 말의 어조나 글쓴이의 태도가 아니다.

Rule8 논술은 문학이 아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라.

장황하고 현학적 문장은 자제하라. 논술은 문학이 아니다.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만 간략하게 제시하면 된다. **복잡한 문장은 읽는 이를 헤매게 할 수 있다.**

논리적 글에서 문장은 무조건 간결해야 한다. 장황한 문장은 읽는 이를 복잡한 단어들 속에서 헤매게 할 뿐이다. 간결한 문장으로 읽는 이를 주장과 근거라는 목적지에 쉽게 이끌 수 있도록 하자.

나쁜 예시

마르크스는 명석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이 있으나 자기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인 면이 있었다고 한다. 술과 사교생활을 좋아해 모든 친구들과 불화를 일으켜가며 논쟁을 벌이기 일쑤였고, 술집이 운집된 골목에서 술집을 모두 돌아다니다가 밤을 새우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 그랬기에 마르크스를 존경하는 사람은 많았어도 친우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다.

좋은 예시

마르크스는 사상적 측면에서는 존경받았지만, 독선적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는 좋지 못했다.

논증의 기술 中 (앤서니웨스턴著)

나쁜 예시

과거에 지도자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과 다르게 노역의 수행이 우선적인 자기 역할인 사람들의 주된 행동양식은 지도자들이 부과하는 의무에 응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 수행해야 할 의무는 그 공동체 및 그 하위단위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됐다. 오늘날 이와 가장 비슷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수행하는 군복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집트 관료체제의 지도자는 법에 정해진 의무를 공동체 구성원들에 부과하기 위해 특별한 비상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좋은 예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평민들이 노역 징집에 응해야 했다

Rule9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말라.

애매한 문장은 그 다의성 때문에 읽는 이에게 혼란을 주며, 모호한 문장은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힘들어서 읽는 이에게 혼란을 준다. **따라서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먼저 애매함과 모호함을 구별해봅시다.

애매하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중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해서 읽는 이를 힘들게 합니다. 이는 글의 신뢰도 상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논술에서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하나의 표현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쁜 예시

나는 영화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

좋은 예시

나는 영화가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초콜릿을 좋아한다.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

나쁜 예시

나는 영화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 영화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곤 하지만 나는 스트레스를 초콜릿의 달콤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애매한 표현을 구사했어도 문맥을 통해 다의성이 해소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의 전후문맥을 통해 애매한 표현을 해소하는 글쓰기 방식에 익숙해진다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술방식이 습관화되면 글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도 애매한 표현을 구사하여 다의성의 문제를 불러 일으켜 논증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맥을 통해 애매함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모호하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 의미가 불분명하여 읽는 이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거나, 읽는 이에 따라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제멋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논증은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작업이므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나쁜 예시

원효는 모나지 않은 성격을 가졌기에 친서민적이었다.

위의 정의에 따를 때 ‘모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근거를 통해 친서민적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 논증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단어와 문장으로써 최대한 모호성을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고쳐 쓰기

원효는 백성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자신에 대한 욕설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등의 모나지 않은 성격을 가졌기에 친서민적이었다.